

[기고] 농어촌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위한 핵심 역할

황인찬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수자원관리부장

홍주표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12-16 09:00



황인찬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
단양지사 수자원관리부장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국가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AX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망 그리드 구축은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AI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급증은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그리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한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망 구축은 농어촌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가치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에너지 자립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은 청정 에너지원인 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넓은 저수지나 호수 등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물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토지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농업이나 기타 지역개발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농어촌의 풍부한 수자원과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미래

이처럼 농어촌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히 발전시설을 넘어 국가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촌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핵심 무대가 되고, 농어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그리고 청년층의 정착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여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우리 공사에서는 농어촌이 국가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주민 참여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에너지 안보를 함께 실현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황인찬 한국농어촌공사 총주·제천·단양지사 수자원관리부장
